

102



김영철 선생

김영철 선생은 1918년 시월 19일에 (음력 무오년 9월 19일) 원동변강 아우원구역 무명촌 3호 동리에서 탄생하였다. 당시 아버지는 제정 러시아의 관리하지 않는 공지-황무지를 개간하여 자기 생각대로 파종하여 먹고 살았던바 그의 성명은 김은보였으며 그는 함경북도에서 1889년에 탄생하였다. 영철 선생의 부친은 조선을 일본 제국 주리가 합병한 다음 1917년에 만주에 와서 고용사리를 하면서 집은 처녀에게 장가들어 살다가 1918년에 원동에 이주하여 와서 살았다. 이 주민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살지 못하고, 2-3-4 호씩 분산되어 살았으며 그적은 마을의 간격도 3킬로부터 10킬로 혹은 15킬로 까지 되었으므로 어떤 학교조직에 대하여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었다.

이 작은 마을의 부모들은 하늘 무덤이 가까운 몇 개의 소 마을
 식물에서 개인 서당방을 열고 거기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공
 부 하도록 하였다. 김영철 선생은 어떻게 조직된 서당방
 에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동 학교에는 형생이 드대
 는 5 명이었다. 이렇게 약 2 년간 혼자 공부를 하다가
 1927 년에 김 선생의 ^부들이 마두원 구역에서 야고블레
 부 구역으로 이사하여 감에 따라 김영철 선생은 러시아
 인 학교 1 학 년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는 아주
 좋았으며 교사들도 아주 훌륭하였으나 러시아 아이들은 하
 학 시간이면 밖에서 "감장러리야", "갓맹이냐" 하고 너를
 나 히공하는 원인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다.

1929 년 여름에 김 선생은 소년단 대회에 가 야고블레브
 근소재지에서 진행하는데 참가하게 되었다 대회는 김 선생을
 두 소년단 대회의 참가자로 선거하게 되어 블라지보스 도크시
 에서 그 대회에 참가하였다 1930 년에 골노르가 조직되
 였고, 골노르는 아동교육을 위하여 소학교를 열었으나 그때
 부터 김 선생은 공부하기 시작하여 1933 년에 초등 1 학 년에 진급
 (되)은하였으나 호 열자 병에 걸리게 되어 5 학 년을 중퇴하

였다
 김 선생은 1934 년부터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집이 먼 관계로 러시아 학생들과 같이 합숙 생활을 하게
 되었다. 김 선생은 원릉에서 러시아 초등 2 학 년을 필하시고

중아시아에 이주를 당하게 되었을바 1937년 10월 24일 저녁에 하유겐트 시내 도착하여, 25일 아침에 화물차로 하유겐트주 중실칙구역 "코슬발가 골노르에 드"로 향하였다. 집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젊은 나이에 죽어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심으로 코슬발가

• 우리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을바 제 1학년 시험 성적이 우수하여 10 루블이상의 상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학중 중도에서 정으로 복학 동생 2명이 병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편지를 받았다. 집에와보니 동생들이 죽은후 어리도 세상을 떠나었다. 어린 형편에서 다시 학교에 돌아갈수 없게 되었다. 김 선생은 1939

• 년 3월 복학 중실칙구역 까라추촌 노비조합 서기장으로 일하였다. 어떻게 하여 김 선생은 가정을 보육하였으므로 어린 동생들이 먹고 입고 공부할수있는 조건을 짐나 주었다.

• 김 선생은 1939년에 소련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1940년 정월 9일에는 김 클라브지야 포도롭나와 결혼하게 되어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1941년에 소련 조국전쟁이 시작되자 어려운 경제형편을 타개하기 위하여 골노르 건설건축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일년이 지나자 1942년 12월에 김 선생은 포령전선에 동행하여 하유겐트주 앙고렌 한광 건설장에 도착하게 되었을바, 여기에서는 김 선생은 건설기업소 공급부장으로

나,
 약 일년간 일한후 김선생은 동 군사지원부의 명령에 의하여
 중월척 군 군사지원부에 도착하여 "굴리노반" 끝노크 건축 책임자
 로 일하였다. 1944년 3월에 중월척구역 공산청년회 대회
 가 진행되었던바, 이 때회는 김영철 선생을 구역공산청년회
 비서로 선출하였다.



사진은 김영철 선생이 군공청년동맹 비서로 재직시 자기 부인
 김클타브지야와 군공청회 제2비서와 함께 하여 촬영한 장면.

김영철 선생은 군공청동맹 직무에서 1946년 말까지, 즉 북한에
 귀환될 직전까지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여 많은 군중들의 의신있
 는 간부로 활약하시었다. 1947년 정월에는 중월척군당 위원회의
 파견에 의하여 활동력이 강하여 열성적 전망성있는 간부로써 평
 화 북한에 귀환할 간부 단기강습에 선출되어 하뉴겐호시
 교육성 산하 강습소에서 약 1개월간 강습받은 다음 1947
 년 12월에 북한에 귀환하게 되었다. 1947년 12월 중순
 에 평양에 도착하여 "동양"여관에 자리를 잡게되었다.
 김선생은 중앙당 학교 교내교원 및 노련 인민력자 교원

임명 받았으며, 부인 김글라브리아드 크머코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김 선생은 중앙당 학교 교원으로 일하시면서 큰대, 법 법를 대 학교 교원을 겸임하시면서 쉼표를 타서 번역사업 까지 하시었다.

1950년 8월 25일, 일요일에 전쟁을 북한은 시작하였다. 모두가 약 될지 몰, 그렇지 아니면 한 달만 어쩔 전쟁은 남한은 북에 합하는 흥일로써 끝나리라고 예견하였으나 비로써 남한련에 인입한 관계로 전쟁의 승리와 끝은 예견 할수 없는 추추깁게로 화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김 선생은 자기 친구 김철우, 박을씨와 호이하고 가족을 조선의 최종북쪽 국경선 회령에 파견하여, 예전 중앙당 학교 졸업생인 군당의 원장 최씨에게 부탁하여 주선하여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긴시간이 못되었다 세월 초순이 되리 회령로 위험한 지역이라 하여 여기에서 가족들은 군당의 주선에 의하여 중국 할렌시에 조속하여 전방적 노련관복들이 가족과 함께 할렌시에서 살게 되었다. 이 당시 여기에서는 조련정복에서 파란한 정복대들과 가족들이 모든 물체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화결하여 주었다. 그 후 이 간부 가족들은 1953년 8월까지 까지 계속 여기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살면서 약어들도 공부하였다. 혹 경우에 고급간부들은 자기 가족 방문자로 이곳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것은 몇명 뿐이었다.

이후 김 선생은 중앙당의 파견을 받아 서울에 4개월

되었다. 7월 19일에 평양을 출발하여 기차로 많은 고생을
 극복하면서 3일만에야 서울에 도착하여 당시 남한
 중앙당 간부부에 도착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당학교 교장으로
 임명받아 약 일개월간 일하면서 일개월간 다기



강습으로 당, 행정기관 일꾼들과 배부기관 기차사부기관 일꾼들 배
 위한다음, 또 다시 당 중앙의 파견으로 경상북도 대구시 당학교
 교장으로 파견되어 조선의 최남선 당에 가게 되었으나 그 당시
 남한 땅에서는 여하한 운수기관이나 철도기관이나 거의 다 물에
 묻혀져서 아니하였다. 화는수없이 임선생과 같이 파견된 2동
 무는, (이 동무들은 그 당학교 교원으로 파견되었다.) 쌀을 리용하여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출발하여 갖인 고생을 다하면서 약 2주일
 만에 대구시에 도착하여 계획적으로 사업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계획과 전혀 다른 형태이었다. 대구에 가는 길에
 금성에 도착하니 대구시는 아직 해방되지 않아 금성과
 안동에 도 지도간부들이 있다고 하기에 안동에서 도당
 위원장을 만나 도당 학교를 안동시에 열기로 하고, 수업 기간
 은 15 일간으로 정하고 세 일기를 끝낸 후 벌써 제2기
 생들이 물이 공부하는 도당 도당 위원장에게서 비밀 서한이
 오기를 작정이 추풍령과 각동강 유역의 항어선을 돌파하고
 급속으로 북으로 행하여 공격하고 있으나 속한 시간내에 전원을
 인출하여 갖이고 평양으로 행하여 후퇴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벌써 9월 중순순이었다. 후퇴해야 할 전원은 교직원까지 합하
 여 약 1300 명이었으나 집이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쓰러 보내야 하므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전원 900명정도
 가 행군에 나섰던 것이다. 우선 작기들이 기총소사를 계속하기 때
 문에 늦에는 행군이 전혀 불가능하였으니, 행군에 나선 전원이
 북한에서 왔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38 선 유역 남한 땅 사람들
 이기 때문에 어긋 지형과 지도를 전혀 몰랐으며, 또 군사
 출신, 또는 군사-전후 경험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행군
 이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방을 모르는 집단이었다.
 하여튼 북한으로 가는 길은 물론이면 군중들이 이상하게 느낀다
 바 북쪽에 있는 큰 도시의 길로 들어가면 매일 35-40 킬로
 점으로 길을 밟았다. 대보는 밤을 타고 나면 낮은 성원들로

4-5 명씩 축소되고 새 성원들은 20-30 명까지 매일 ⁸새
로 편입되어 북강원도 평강에 이르니 전성원은 180 명에 달
하였던 그런데 본래 행군 방향을 정한 곳은 평양이었으나
10월 초순에 들어서면서 이군은 서쪽으로 진행한 다음 38선
을 넘어 평양에 방향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 김선생은 행군 방향을 변경시켜 평북 초소를 목표로 하고 계
속 후퇴할 것을 결심하였다. 행군하는 전원의 발은 전부 다 붓
고 물웅덩이치고, 뽕어살이 내밀고 피까지 흐르는 경도였으나
그래도 걸어야 살길이 전망이었으니 걸어야, 걸지 못하면 적에
게 포로 되어 그들의 짐까지 증에 지고 걸어야 되니까, 걸지 못하
면 큰길 옆 개랑참에 출살하여 처넣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 걸어야 하였다. 그런데 걸자 하나 또 걸어야 하였다. 먹자
하나 씹어 먹고, 낚한 죽이든에게도 없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린 여인들이 눈물이나 한숨을 쉬면서 원망하는 것을, 전
쟁을 원망하는 것은, "누가 이 전쟁을 야기시켜서 전체인사, 어린
아이들까지 굶어 죽게 하는 것이냐?" 고 원망을 하는 것으로 들으려
● 면 그집에 들어가 밭어막 쌀구더기를 훑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
들도 도루 그녀의 앞에 훑어 놓고 나오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행군하던 사람들은 지방농민들의 밭에 나가 호박, 감자, 배채, 무우 등
과 양평 말라 먹지 못할 옥수수까지 얻어 삼아먹곤 하였다
그런데 이 행군 대열이 백병이냐 천병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
십만 명이 매일같이 어떻게 먹할 하여 먹다보니, 굶는

도착한 사람들에겐 이것은 없어서 강탈하여 버리 못하였다.



사진은 김명철 선생이 1952년에 공화국 사회안전성 정치국
성전부장으로 재설시 안전성 협주단 성원으로라 함께 찍힌 사진.

김 선생 열병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교생을 참으면서 여러차례
양력 맹산으로 지나 최현 덕현 운곡을 걸쳐 초산에 도착하였
으며,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활벗은 군중들에게는 돈도 없거나
와 동복이 없어서 떨게 되었다. 이곳에서 다시 지시를 받아
전반에 도착하니 (동방국 국경로) 함의 북로 위문단의 영
의로 근엄한 검은 밤에 죽을 베풀라 했으며, 칩어 연도 불상
한 군중은 동복으로 바꿨다 이 군중은 남한 안중에서 떠
나지 40 일만에 전 반까지 도착하면서 한 번도 내복도
갈아 입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격도 한번 간도 입어 없던
보니 눈물에 이 후 성어가 되어 앉으면 글다 보니 갈수록
어렵다. 원래는 베풀고 하고 새 의복으로 갈아 입고 보니 좀 살을

있는 전방이 있는것 같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접대원의 지시에 따라 김선생은 증산 이만보우
시씨 중앙당학교가 임무하여 왔다는 통보에 따라 가시였다. 김
선생은 따라온 전희 성원들이 다함께 가서 중앙당학교에 가서
등을 식했다. 김선생은 한중에서 부하 동학하여온 과정 동화보고
● 를 중앙당학교 교장 허익 선생에게 제출한다음 예전과 같이 소련
령사 교원 및 글이 교원으로 임명 받고 가족을 찾아 함경북도 황성
을 돌아 할빈시에까지 가 다녀왔다. 그후 김선생은 어리보우
중앙 당학교에서 약 2개월 동안 일하시던 다시 당중앙리
시에 따라 증강에 도착하여 사회안전성 경희록 선전선동
부 부장으로 임명받아 일하게 되었다.



사진은 김선생이 사회 경희 안전성에서 일하실시 후
식 시간을 리용하여 모란봉에서 촬영한것이다.

김영철 선생은 사회 경희안전성에서 긴시간 - 약 8년간
각급 부장 직 무에서 일하시였다.

장시간 생활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 안전성에서 일하
다 보니까 미국 최대 복잡한 사변들은 많이 겪었으며 또
그런 사변들을 취급하고 해결책으로 채택한 일도 많았을 것
이다. 김영철 선생의 자서전에서 한 에피소드를 읽어
보기를 하자. « 바로 1951년 8월 14일 이른 아침이었다

● 평양시 상공을 불만개가 작욱이 끼고 굵은비가 밤부터 계속화
하여 흐르곤 있었다. 먼저 사이렌 소리가 야생하듯 울려
온다음 하늘이 진동할듯한 비행기 발음기 소리들이 남쪽하
늘로 북히 들려 오고 있었다. 김 선생은 평양시 남쪽시 부근

● 선교로, 한개 층층이 똑갈라진 벽돌집 일층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 안전성 경희국 사무실에서 밖으로 뛰여 나와 무는귀
편이 나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발음기소리가 들리노가 하고 하
늘안처다 보고 서 있었다. 다나 그런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비록
에서 가장 명성 높은 B-29형 "공공모새"라고 부
르는 비행기가 29대가 한개 분조를 짊어가지고 날고 있

● 었다. 그런데 29대씩 똑이 하게 하늘을 쳐다보니 이런
분조가 하나인것이 아니라 여러 아나한 간격을 두고 나개
분조가 날아오고 있었다. 이 평양시 폭격에 미국 비행
기 B-29 형이 몇대나 참가했는지 알수없었으나, 폭
격은 그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로 내부
성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시민 1만 6천명이

죽었으며, 평양 중앙북은 집안채로 남김없이 몽항되^{1위.}
 귀 되었으며, 전기, 가스, 수도 시설 등이 전부가 폐허로
 되고 말았고, 평양 중앙북은 거리가 다 파괴되어, 자를
 찢는 고사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로 힘들었다. »고 하였다.
 김 선생은 1951년 3월 초순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평양시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목격하고 질서를 수습하였
 으나 누가 그 선생의 공로를 인정하여 줄일은 없었다. 이렇게
 바쁜 전쟁이 끝나자 평양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는 평양에 복구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일하였다.



사진은 1954년에 김영철 선생이 사회안전상과 같이
 당 열성과 회의 뒤끝에 촬영한 것이다.

조국전쟁이 끝나고 평양시 복구사업이 좀후진 되기 시작하자 큰중
 들은 여러가지 여건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 여건도 더 대개는 아
 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전쟁 3년 어간에 전인민이 다같이 피
 혼되어 투쟁하였는데 김 일성이 혼자만 대원수가 되었으며

논쟁 (레달은 비발 지사만 출신들에게만 해와 주권공공 면안출신
 은 아무것도 없고 처별만 당하는가? 중국에서는 누가 주권 활약하
 고, 그 공로는 다 김일성에게만 돌리는가? 부경 장군은 어디로 갔는가?
 이것은 중국출신 간부들이 어려하였지만 남한 간부들도 불평의 상
 당히 많았다. 그것은 특히 박헌영, 최승엽 남로당 지리간부
 들을 처단 당함과 크게 관련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김일성은
 자기에게만 충공허는 코공당을 만들어 띄워야 당중앙에서 일하면
 몇명의 아첨쟁이 - 김항만 (연안파, 변절하고 자기 중요도를 다
 잡아먹고 내공에는 자기로 잡혀 처단당한) 부 위원장을 선두로
 하는 권체 코공당원들의 사상을 견제한다는 사상검토위
 원회를 조직하고 1956년 초부터 각 당단체, 각성, 인
 민군대까지 포함하여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사상검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상검토 사업은 어떤 기관이던, 사회단체나, 행정기
 관이던, 군대인 할것없이 코공당원이 참가하는 총회가
 매월 10일 시작하기전 약 2-2.5반 정도 시간을 리봉회에
 진행하되 총회는 밤 8시의 상부 당단체에서 파견한 대표가
 열고 약 20일안은 매회가 시작되는 첫 순서를 상부파
 견자가 « 새 민주사회 건설이란 무엇이며, 인민의 수령 김
 일성 원수에 대한 충성이란 무엇이며, 매개 당원들은 사상
 적으로 건전해야 되며, 겸손성,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는것을

설명하여 준다음 각 당원들이 문서적으로 호론에 참가
 하여야 한다. 호론에 참가하는 각자들은 자기의 충성심, 정력
 성 겸손성을 실지 실례로써 지나온 과정에서 나타낸 것
 을 증명하여야 하며, 또 정반대로 자기가 정반대로 그릴
 지 못하였다면 실례로 어떤-어떤 과오들을 범하였으며
 • 또 어떤 당원들은 일을 범하여 당과 국가에 어떤 해독
 을 끼치게 하였다는 것을 낱낱이 열거하여야 한다. 만약 그
 령지 않고 어떤 위반이 있는 것을 그치고 내여 놓아 놓았
 다가 다른 당원의 비판에서 어떤 불리가 드러나면 그것
 은 고이적으로 당과 인민을 속여자는 야망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를 출당주거나 철거시켜 다른 법
 적 책임추궁을 하게 하였다. 이 당시에는 각자들에 대
 하여 각 전직에서 재료가 소집되며, 내무성, 정치안전성
 등에서 전부다 재료를 들어 집결되게 되어 왔다. 호론자의
 분설이 좀 정황이 못하며, 좀 노기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2-3 일 휴식으로 주어 갈 연구하여 다시 호론하라고 하고
 •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취급한다. 2-3 일 휴제도
 역시 좀 그치는 것이 없고 비판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런 자
 들은 출당주어 철거시켜서 농촌에 경배사리를 보내거나
 감옥에 갇두거나 한다. 이 사상 검열 회의 결정서는 누
 구런지 시정하든가 변경시킬수없는 완전무결한 물건이다.

많은 지도 간부들이 이 사상검토회의 결정이 잘어 지기까지는
 사무시간이면 자기 회전의 자리에 앉아서 이만 저만하고 지도리
 시를 주다가도 검토회의 결점만 나오면 그날부히 그 간부는 회
 의록에 기록된대로, 월직, 출당 혹은 재교양 목적으로 농촌이나 한강
 혹은 벌목장이나 어장으로 파견하곤 하였다. 그 회의 결점은 재 판

- 장의 판결보다가르 더 엄격하였다. 왜냐하면, 재판의 판결은
 상부 재판이나 최고 재판소에 비르기까지 고소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이 결정서는 누가 꾸미느냐가하면 상부에서 내려온 검토
 회의 지도원하고 그 해당 단체 당위원장이 만들어 낸다. 물론
 그 사상 검토회의가 시작 되기 이전에 당위원장은 자기 초안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상부 당 단체와 해당 지도원과 협의하여 다
 꾸미놓고 회의가 시작되면 그쪽은 그대로 돌리든것이다. 때
 문에 어디에 당위원장은 군데 높은게 언방만 쳐다보면서 허
 험장답만 늘 "내 빨근 잇는것이다. 이 사상 검토에는 처음
 남로당 출신 간부들이 다 녹았으며, 다음 중국출신, 맞이박으
 로 노련 출신 간부들이 다 녹았다. 소련에서 교양받으러 가라
 난 간부들은 대단히 단속하려, 여러 동무들에게 쉽게 자기특성권부
 를 남기었어 털어 놓고, 누구나 다 자기동무. 아주 친한 친구며, 원칙
 처럼 여기고 아무 필요 없는 말, 과거나 현실에 대하여 검열하지
 않고 말하면서, "내가 네게만 말하리, 우리 사령관이 아련
 정이래, 일하기 싫어, 제때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니 어

어떻게 군사 규율이 확립된다는 말인가? 우리 군대는 정규군대인 것
 만칠 무엇이든 다 군사규정대로 엄히 행령해야지. 무리군
 대는 중국 빨갱이 부대가 아니라 말이다. 이러한 소련 출신
 아주 똑똑하고, 교양있는 이반 등 총명하고 지성인, 준비된 간부
 김철성이 (해군 사령부 참모장) 자기들 가장 다정한 친구란
 전 해군 군관학교 교장 직책을 지낸 소련 출신 리세호에게다
 동지적으로 솔직하게 실속대로 말하였다. 2년의 상이 지
 난 후 사상검토 운동이 시작되자 소련간부 몇 명이 일한 해
 군사령부에서 이놈들이 무슨 유해로운 영향을 끼쳤을 것만 사실
 인데 하고, 군대내 당 사상검토 총 귀수 김창만이는 지시하거
 를 그놈들로 (소련 출신 간부들을) 밑에 용탕 영항에 잡아넣고
 심문은 허나씩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본래 속심이 여물 김
 철성은 이를 딱가 붙고 누르르 밀려나지 않고, 그런 솔직성에서
 벗어날 길에 대하여서는 입밖에 내 놓지 아니하였다. 사람잡이에
 서 이력이 헛으며, 남의 속심을 배내는데는 식은 죽 먹기로 여기는 당
 사상검토 지르원은 1대일 번가라 할날은 김철성, 다음날은 리
 세호 따르-따르 심문하며, 느긋하고, 얼리고, 추기 추기 하여
 리세호의 입에서 어말이 전복다 나오게 하였다. 물론 리세호
 도 김철성을 잡으려고 어말을 헛것어 아니라, 자기의 참역성을 보
 이기 위하여 그런 말이 나오게 하여 놀려주고, 결국 자기들이
 장가가우며, 자기를 항상 사업에서, 조어편 환경에서 단적
 같사 죽던 동지이며 한번 해군 참모장 김철성을 죽게 했다.

비밀계 기밀하게 심문을 맞추고, 비밀에 비밀은 다 빼낸 사상
검토지르자는 작기가 지르한 사상검토 회의록에 결론적으로 :
전 해군사령부 총참모장 직무를 취지 하고 있던 반당, 반인민 반
혁명 분자 김철성이인 사령관 리영호의 직위를 박탈하기와
하여, 그리고 그 자리를 작기가 찾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허
위적 조건을 붙여 그의 위신을 저락시켰으며, 명목적 항일 김일
성 빨치산 부대에 대하여 규율이 없으니 하면서, 지급자
기가 지르하는 해군 부대란 경구군어니 하면서 각 방면으로
위신을 제고 식히도록 전사들을 교양할 때 신에 결반대로

(정반대로) 교양 방침을 돌려 반혁명, 반당, 반인민적 정책을 하여
취하고 언변군 하 전사들에게 취급 식히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김철성은 절대로 해군 사령부 직위에 해당되지 않
음으로 그를 속히 그 직분에서 철거시켜 군사재판에 회
부할 것을 언변군 최고사령관에게 제언한다. > 라고 썼다.

또 다른 레로 전선 정치국장 김철우는 상부에서 화전반야 온
정치간부를 작기 관하 부대 어떤 정치직부에 엄명 화전하면서
런대강게 전회하면서 << 그 사람이 대항은 4보지 땀았으나 아주
용병하고 단정하며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이나 런대강 등부
접수하여 잘 이용하 심사보기 하였다. 이것이 당 사상검토 회의에서
문제가 되어서 언변군 총참모장 김광협은 말하기를 << 전선정치
국장으로서 전체 항일 빨치산 성원들이 대항 4보지 못한것으로
반회 알면서, 어떤 말을 한것을 김일성 장군을 위하는 전체

항일빨간간부들(간부)에 대한 모욕이며, 반당적, 반혁명적 인사
 라고 인정하면서, 전선 정치구상의 자격이 없으니 즉석고각무
 에서 철거시켜 제대식후로 사회에 내보내야 된다고 하였다.
 다른 레를, 연안에서 나온 혁명간부 리익선(리상조 씨와
 아주 친한 한고향사람)은 당시상검논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 친근한 음모끼리 남몰래, 가만히 말하기를: «
 그것 봐, 상복 당단체에서 지르나왔다는 사람도 보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저의 한 사람이 무엇 오라 가라 하면서 거절을
 쓰는거야? 우리가 중국에서 사임할 때에는 김일성의 뜻 위에 얹어
 서 김일성을 오라, 가라, 하였다는데, 오히려 김일성 혼자만의 위
 대한 혁명 장군이요, 하여서 우리보다 가라 오라 호령하지 않
 는가? » 말한바 있었다 그 몇분 후 이 말을 그대로 김일성
 에게 누구인지 알리하였다. 김일성은 그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
 리을설(어전 김일성 부관, 그 당시 평양시 경무장) 오라하고
 « 리익선이란 놈을 당장 붙잡아 가지고, 서평양 공도묘지에
 나가서 굴을 파고 산장하도록 금일대로 하라 » 하였다.
 사실 리익성은 어떻게 김일성에게 복수를 내야 할 것이다.
 이 사상검론 운동에 걸려 노련 출신 간부들이 많이 군사재
 판을 받고 후복되었다. 유영지에 나가서 해마다 죽었으
 며, 현재 어디에서 죽었는지 묻지도 찾아볼수 없는
 사람이 기수복족이다.

김영철 선생은 이런 환경에서 사상검도를 받고 그 결과¹⁹,
노련에 대한 사대주의, 노련 출신 간부들의 가족주의 노련식 관료
주의 등 골격을 달아 등기하는 엄공검고 책벌을 받고, 철직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어느 장노, 어느 기관, 어떤 사람이 철
복적으로 한가지 재물만 당 위원회에 제출하면, 출당은 물론
제가 아니냐, 철직 후속도 뒤따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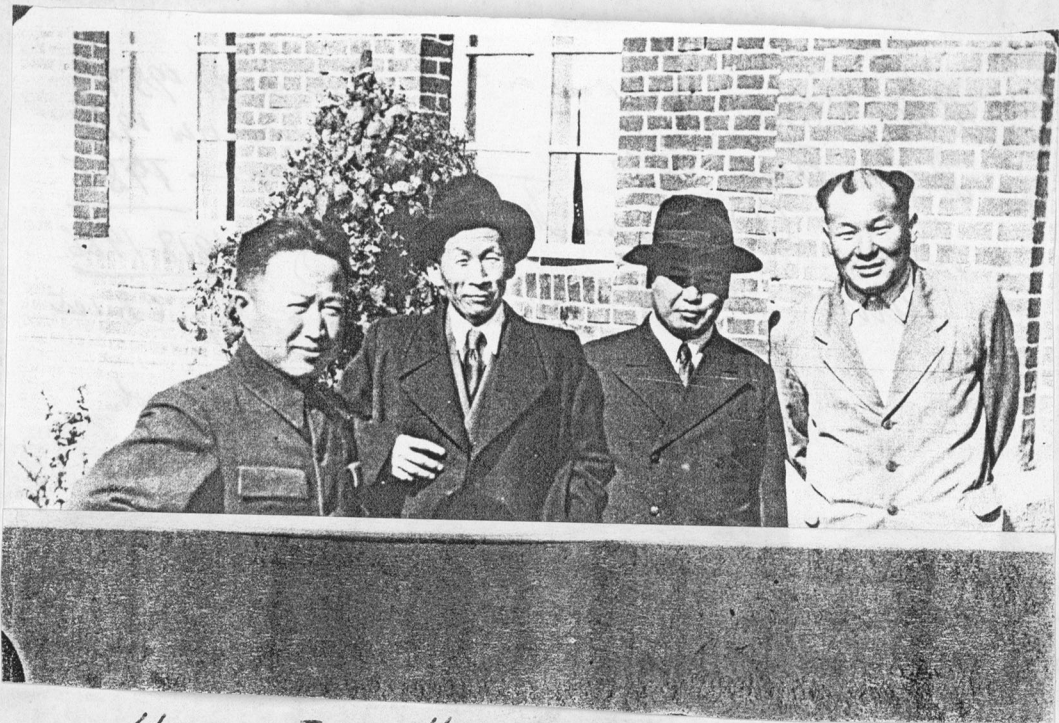
김 선생은 이런 피비린내 나는 내조극은 떠나, 취라리 어죽
에 가서 흙을 밟 대로 쉬면서 자유롭게 살며, 아이들어나 공
복시켜 뉘세우 겠다고 생각하고 부인 라 흐의 연속 노련
대사관에 찾아 가서 남문대 귀국 문형 형원으로 제출하였다.
그후 김 선생은 계속 출근하면서 출장도 가곤 하였다. 임국허가
청원으로 5월 초순에 제출한 것이 9월 초순에야 임국허가가
대사관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다시 조선령
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1954년 9월 24일에 직장
에서 반권리 결산하고 9월 말일에 평양을 출발하여 10월
10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노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와 외무성에서 후속을 받은 후 11월 25일에 하슈켄트
에 도착하였다. 하슈켄트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 귀국
문건을 접수한다음 1960년 8월 부히 유즈베크 공화국 내부
성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사택도 분배 받고 아이 들은 전
북다 학교에 입학 시킨 후 북연은 방직공장에서 방직공으로
일하게 된 후속되었다. 김영철 선생은 내무성 각 요직에서



사진은 북한에서 십여년 름주건설에 참가하시다가
한 행배로 북한에 귀국하신 김영철 선생의 동보들:
좌로부터- 인민군 제4집단군 군사위원 김단노장, 제3집
단군 군사위원 김학철 노장, 평양 제6고급 교장 현이환,
제4집단군 사령관 직에 계신 정철우 노장, 사회안전성
정치국 선전-선동부 부장 김영철 대라. 모스크바에서 1959.

1983년 말까지 일하시고 공훈적 공화국급 개별적 년급
생으로 수속하고 부부간 아들 2명, 딸 2명을 데리고 행

북한 생활을 하시면서 1986년까지 계시다가 맞이막
시기에 고향을 향하여 좀 쉬고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선조들의 고향-북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자유와 행복을 찾아 소련에 귀향하신 후 1986년까지
까지 일하시던 은근 생활을 하시면서 휴식시간으로 리용
하여 찍은 사진이다!

좌로부터: 김영철, 신철선생, 박병운선생, 주광부선생.

김영철 선생이 별세하실시 가정에는 부인 12골라브지마
사모님과 같이 아들 형제, 딸 형제가 사회에 출신하고 있
었다. 지식들은 전부다 대학을 나온 유식자들이며 이웃
에게 항상 존경을 받는 일꾼들이었다. 특히 광남 앞
마을은 다듬게는 의대를 다녔하고 다듬게는 시골한사
를 주 종합 병원에서 외과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남은 모스크바 기계전공 대학을 다녔고 원래 원대 대학
합격자임도 생업공정사로 일도 보고 있으며, 딸들도 다

사대출신으로 현재까지도 교육사업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어루코 남부러움이 없이 살고있다.
 김복희씨와 사모님은 수십년 동안, 북한에 가서 계
 살때에도 교육사업에 종사하시다가 1975년에 녀름생
 으로 녀어가 장남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1992년 4월 3일에 부검을 열기로하시고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날시에는 벌써 백절러기 딸이
 30세가 되었고, 큰 아이들은 40세 이상이 되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시였다.

현재 장남과 처남은 "조선 민주평화 통일구국전선"
 성원으로 사회 운동 사업에 열성적으로 노력고 열심히
 자기고향에 대한 소식을 매일같이 이웃에 전하고
 설명하여 주변서 하로도록 자기조국에 돌아가서 살
 무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늙은 대열
 예서로 열성자이기 때문에 평양에 관광단으로 갔
 다가 문일로 왔고 구국전선 회의참가차로 남한 여러
 곳으로 다녀 문일로 왔다.

김영철 선생의 지식들이 녀름은 오직 평화통일이고
 자기조국에 돌아가 살라는것이다.

재 료는 김영철 선생이 자기손으로 쓴 회생기에서
 취한것이다. 다음게는 1998년 3월 21일.